

# “에어컨 수리 한 달 기다리세요”...뾰뚱더위에 ‘AS대란’

### 6월부터 수요 급증...기사 30% 확대에도 역부족 부품 고장은 사설업체 수리 불가 ‘소비자만 피해’

일찍 찾아온 폭염에 에어컨 수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광주에서도 ‘에어컨 AS(사후관리서비스)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뾰뚱더위’에 에어컨 수리 신청이 몰리면서 오늘 당장 수리를 요청해도 한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에어컨이 고장나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냉매 충전과 누설 등의 경우에는 사설업체에 맡겨 수리가 가능하지만 부품이 고장난 경우에는 사설업체가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답답함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광주일보가 지역내 서비스센터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지난달부터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가전업체에 에어컨 AS 접수가 폭주하고 있다. 지금 수리를 요청하면 짧으면 4-5일, 늦으면 한달 뒤이나 방문이 가능하다는 게 서비스센터 측의 설명이다.

18일 삼성전자서비스에 문의한 결과 서구 풍암동의 경우 다음달 23일 수리기사가 방문 가능하고, LG전자는 서구 쌍촌동의 경우 벽걸이 에어컨은 22일, 시스템 에어컨은 다음달 5일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축 아파트들에 많이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벽걸이, 스탠드 등 일반 가정용 에어컨과 비교해 천장에 매립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AS에 시간이 더 걸린다. 시스템 에어컨 점검 및 수리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통상 7월 말~8월 초 발생하던 AS 폭주 상황이 예년보다 한 달여 일찍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도 “6월부터 에어컨 수리 및 점검 요청이 많아졌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른 더위 영향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에어컨 AS 수요는 전체의 70%가 6-8월에 집중된다. 그동안은 6월 말부터 에어컨 AS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7월 말 정점을 찍고, 이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올해는 불볕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면서 6월 중순부터 AS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AS 대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폭염이 일찍 시작한 만큼 길어지는 분위기라 AS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컨 가동 시점이 빨라지면서 에어컨 가동 시간도 함께 늘고 있는 만큼 AS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모양

새다.

기상청이 발표한 “7-8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평균 기온은 평년(24.0-25.6℃)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덥고 습한 공기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업체들은 서비스비상대기 시스템을 지난달 중순부터 운영하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AS 수요에는 역부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사설업체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브랜드 에어컨의 부품이 고장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사설업체가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에어컨 수리가 불가능한 한 탓이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이다.

제조사 측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설업체에는 부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비스 품질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가 수리할 경우 고객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조사에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인력을 30% 이상 늘려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인력에 2배 정도를 늘려야 여름철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게 현장 수리기사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여름철의 수요만을 위해 무작정 인력을 늘릴 수 없고 여기에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에어컨 수리 기사들의 AS 처리량도 줄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전남 폭우로 항공기 결항 등 피해

### 진도 시간당 71.1mm 내려

18일 광주·전남에 시간당 최대 71.1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항공기 결항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고흥 133.5mm, 진도 127mm, 보성 122mm, 신안 119.5mm, 영암 119mm 등 많은 비가 내렸다. 광주에도 53mm의 비가 왔다.

진도에는 시간당 71.1mm, 보성에는 시간당 41.1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7월 시간당 강수량 극값을 경신했다.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고흥·보성·진도·영암·신안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으며, 광주를 포함해 전남 지역 전역에 호

우 주의보가 발령됐다.

강한 비로 항공기가 결항되기도 했다. 여수공항에서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여수와 김포를 오가는 아시아나항공 OZ8734편 비행기가 폭우로 결항됐다. 또 여수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10시 35분 제주항공 7C611편, 11시 45분 아시아나항공 OZ8197편 비행기가 1시간여 지연됐다. 광주공항에서는 제주행 대한항공 KE1903편 비행기가 40분여 지연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19일 새벽 6시까지 정체전선 영향을 받아 5-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비가 그친 뒤 광주·전남은 체감온도가 31-33도 이상으로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KTX·일반 열차 운행시간 일부 조정

### 31일부터 호남선·전라선 등 야간작업 시간 확보 위해

한국철도(코레일)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31일부터 야간작업 시간 확보와 무인역 안전 확보를 위해 KTX와 일반열차의 운행 시간과 구간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 노선은 호남선 29개, 전라선 24개, 경전선 7개 등 총 60개 열차다.

새벽 시간 진행되는 선로 점검과 정비를 위해 호남선 무궁화호 상행 첫차(광주 오전 4시 출발→용산 오전 8시 47분 도착)와 전라선 무궁화호 하행 막차(용산 오후 9시 25분 출발→여수엑스포 익일 오전 2시 37분 도착)의 운행구간을 일부 조정했다.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해 용산-익산 간 운행 시간은 유지한다.

광주-익산 구간은 출근 시간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열차를 신설, 익산역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익산-여수엑스포 간 오후 8시-10시대 시간격차 단축과 환승 편의를 위해 오후 9시 열차 운행 시각을 조정했다.

경전선 광주송정-순천의 단선 구간 경우 시민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해 역무원이 배치된 역에서 교행하도록 조정했다.

변경된 열차 운행 시각표는 각 역과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앱 ‘코레일톡’ 또는 고객센터(1544-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캠퍼스 고목도 반가운 대비 기온과 무더위로 지쳐가던 광주·전남 지역에 단비가 내린 1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에 우거진 신록 사이로 학생들이 우산을 쓴 채 지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 난독증 학생 치료 지원

### 3년간 120여명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이 난독증(難讀症)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치료를 지원한다.

18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난독증 의심 대상 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 119명을 난독증 치료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했다.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3년 동안 이들의 치료를 지원한다.

치료대상 학생은 인종기관에서 1회당 4만 5000원에 해당하는 치료지원을 받는다.

양 교육지원청은 난독증 학생을 둔 부모와 교

사들을 위해 오는 9-10월 4회에 걸쳐 연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교대 이경호 교수와 일동초 김미란 수석교사가 연수 강사로 나서 난독증 이해와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 방법 등을 알려준다.

양 교육지원청은 연수를 계기로 보호자와 교사가 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적극적인 소통으로 학생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난독증은 듣고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정상적인 지능을 타고났고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읽기와 받아쓰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집

# 수 목 장

누구에게나 필수인 영원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 1522-9341